

국어 사전에서의 고유어 접두사*

박형익**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짐작되는 국어 사전인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1988),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 큰사전』(1988),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992), 이기문 『동아 새국어사전』(1994), 김민수 외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199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 사전』(1998)에서 접두사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조사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6개의 국어 사전을 이회승(1988), 신기철(1988), 한글학회(1992), 동아(1994), 금성(1996), 연세(1998)로 표시하기로 한다.

위의 국어 사전에서는 접두사를 약호(줄임표) ‘접두’(신기철, 동아, 금성, 연세), ‘앞’(한글학회), ‘두’(이회승)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연세(1998)만 제외한 나머지 사전들에서는 붙임표(-)를 사용하여 접두사가 붙은 표제어가 단일어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제어로 올려져 있는 접두사가 표준어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어원을 밝혀 놓았다. 비표준어인 경우에는 표준어를 적고, 표준어 앞에 기호(→, ⇒, ⇨)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접두사가 옛말, 방언, 북한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각의 약호(옛, 방, 북)로 표시하였으며, 외래어의 경우에는 외래어의 국적

* 이 글은 국어국문학회 주최 제42회 전국 국어국문학회 학술대회 개인연구발표 논문임.

**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을 약어로 밝혀 놓았다.

국어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는 표제어는 표준어 접두사와 비표준어 접두사로 나눌 수 있다. 표준어 접두사는 고유어 접두사와 차용어 접두사로 나누어지며, 차용어 접두사는 한자어 접두사와 외래어 접두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비표준어 접두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어 접두사와 방언 접두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6개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올려져 있는 표준어 접두사 중에서 고유어 접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사전, 한국어 파생어 사전, 한국어 접두파생어 사전, 한국어 접두사 사전, 한국어 띄어쓰기 사전 등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올려져 있는 고유어 접두사를 모두 찾아서 표를 만들었으며, 각 사전에서 고유어 접두사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2.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올려져 있는 고유어 접두사 목록

<표 1>

| 표제어 | 사전 | 이해승 (1968) | 신기복 (1968) | 한글학회 (1992) | 중앙 (1994) | 간성 (1996) | 민체 (1998) |
|-----|----|---------------|---------------|----------------|--------------|--------------|--------------|
| 가- | | + | + | + | + | + | - |
| 갈1- | | + | + | - | - | - | - |
| 갈2- | | - | - | - | - | - | - |
| 관- | | - | - | + | - | + | - |
| 갖- | | + | + | + | + | + | 부사 |
| 갈- | | - | - | + | + | + | 장(형) |
| 갓-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가미- | | - | - | + | - | - | - |
| 갈1- | | - | + | + | - | + | - |
| 갈2- | | - | + | - | - | 장(1- | - |
| 갈1- | | - | - | + | - | - | - |
| 갈2- | | + | - | + | - | - | - |
| 갓- | | - | - | + | + | + | - |
| 갓- | | + | + | + | + | + | - |
| 동음- | | 부사 | 부사 | 부사 | 부사 | 부사 | - |
| 관- | | + | - | + | - | - | - |
| 갓- | | - | - | + | - | - | - |

국어 사전에서의 고유어 접두사

| 표제어 | 사전 | 미희술 (1988) | 신기영 (1988) | 한금학 (1992) | 송아 (1994) | 강강 (1996) | 연세 (1998) |
|------|----|---------------|---------------|---------------|--------------|--------------|--------------|
| 중- | | 중(중)- | 중(중)- | + | 중(중)- | - | 중(중)- |
| 중- | | 관행사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까딱- | | + | + | + | + | + | - |
| 꼬투랑- | | - | - | - | - | - | + |
| 꽃- | | - | - | + | - | - | - |
| 쇠-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난- | | + | + | + | + | + | + |
| 일- | | 명사 | + | 명사 | - | 명사 | + |
| 내- | | + | + | - | + | + | - |
| 내리- | | + | + | + | + | + | + |
| 닛- | | + | + | + | + | + | - |
| 닛-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년- | | 관형사 | - | + | + | - | + |
| 대- | | + | + | + | + | + | - |
| 닷- | | + | + | + | + | + | + |
| 대- | | + | + | + | + | + | - |
| 줄- | | + | + | + | + | + | - |
| 외- | | + | + | + | + | + | + |
| 환- | | + | + | + | + | + | + |
| 무리- | | - | - | + | - | - | - |
| 줄- | | + | + | - | + | + | - |
| 뒤- | | - | + | + | + | + | + |
| 뜨- | | - | + | + | + | + | - |
| 뒤1- | | + | + | + | - | + | + |
| 뒤2- | | + | + | + | + | + | + |
| 뒤미1- | | + | + | + | - | + | + |
| 뒤미2- | | - | 뒤미1- | + | 뒤미1- | 뒤미1- | 뒤미1- |
| 방- | | - | - | + | - | - | - |
| 백- | | - | - | - | - | - | - |
| 백1- | | - | - | + | + | + | + |
| 마2- | | - | - | + | 마1- | + | + |
| 년 | | 명사 | - | + | + | - | + |
| 날- | | + | + | + | + | + | + |
| 몇- | | + | + | + | + | + | + |
| 개- | | + | + | 부사(부) | + | - | 예(하) |
| 면-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매- | | + | + | + | + | + | + |
| 오나기- | | + | + | 명사 | + | + | - |
| 복- | | + | + | + | + | + | + |
| 꽃 | | 명사 | - | 명사 | 명사 | + | + |
| 꽃- | | 관형사 | + | 관형사 | + | 관형사 | + |
| 민-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매네- | | + | + | + | + | + | - |
| 번- | | - | - | - | - | - | - |
| 복1- | | - | - | + | - | + | - |
| 복2- | | - | + | + | - | + | - |
| 빛- | | + | + | + | + | + | + |

| 표제어 | 사전 | 이희승 (1988) | 신기철 (1988) | 한국학회 (1992) | 두아 (1994) | 금성 (1996) | 연세 (1998) |
|-----|----|---------------|---------------|----------------|--------------|--------------|--------------|
| 배대- | | + | + | + | + | + | + |
| 별- | | - | + | + | - | - | - |
| 불1- | | - | - | + | - | + | - |
| 불2- | | - | + | + | + | + | - |
| 빛- | | + | - | + | + | + | + |
| 살- | | - | - | + | - | + | - |
| 새1- | | - | - | - | + | - | - |
| 새2- | | - | + | + | + | + | + |
| 넷-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앞-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
| 쇠1- | | + | + | + | + | + | + |
| 쇠2- | | + | - | - | + | + | + |
| 주- | | 명사 | 명사, + | - | + | + | + |
| 숫1- | | + | + | + | - | + | + |
| 숫2-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심- | | 명사 | + | + | + | + | + |
| 잇- | | + | + | + | + | + | - |
| 인- | | 관형사 | - | 명사 | + | 명사 | + |
| 알- | | + | + | + | + | + | + |
| 안- | | 명사 | 명사 | + | + | + | + |
| 아1- | | + | - | + | + | + | + |
| 아2- | | 대1- | - | + | 아1- | 아1- | 아1- |
| 아리- | | + | - | + | + | + | - |
| 얼- | | + | + | + | + | + | + |
| 엿- | | + | - | - | + | + | - |
| 어- | | - | - | - | + | + | - |
| 여- | | + | 대명사 | 대명사/부사 | - | 대명사/부사 | 대명사, 부사 |
| 얼- | | + | + | + | + | + | - |
| 엿- | | - | - | + | + | + | - |
| 엿- | | 관형사 | 관형사/김두사 | + | 관형사 | 관형사 | 관형사 |
| 오- | | - | + | + | + | + | + |
| 옥- | | + | + | + | + | + | + |
| 용- | | - | + | + | + | + | + |
| 윤리- | | - | 김두사생부사 | + | - | - | - |
| 울- | | + | + | + | + | + | - |
| 용담- | | + | + | + | + | - | - |
| 왕- | | 왕(王)- | 왕(王)- | + | 왕(王)- | 왕(王)- | 왕(王)- |
| 외- | | + | + | + | + | + | + |
| 웃- | | + | + | + | + | + | + |
| 미- | | - | - | + | - | - | + |
| 어슴- | | 관형사 | 관형사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자운-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
| 준- | | - | - | + | - | + | + |
| 줄- | | + | + | + | + | + | - |
| 줄- | | - | - | + | - | + | - |
| 줄1- | | - | - | + | + | + | - |
| 줄2- | | + | + | + | 줄1- | + | - |
| 진1- | | - | - | - | + | + | + |
| 진2- | | - | - | - | - | 진(眞)- | + |

| 표제어 \ 사전 | 이희승 (1988) | 신기철 (1988) | 한글학회 (1992) | 동아 (1994) | 금성 (1996) | 연재 (1998) |
|----------|---------------|---------------|----------------|--------------|--------------|--------------|
| 선3- | - | - | - | 진(鎭)- | 진(鎭)- | + |
| 것- | + | + | + | + | + | + |
| 관- | - | + | + | + | + | + |
| 죽- | - | + | + | + | + | + |
| 차- | + | + | + | + | + | + |
| 참- | + | + | + | + | + | + |
| 꿈- | + | + | + | + | + | + |
| 치- | - | + | + | + | + | + |
| 치- | 관형사 | - | + | + | 관형사/- | + |
| 치- | + | + | + | + | + | + |
| 근- | - | - | - | - | + | - |
| 풍-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붓- | + | + | + | + | + | + |
| 피- | - | - | + | - | - | - |
| 한1- | + | + | + | + | + | - |
| 한2- | - | - | + | - | + | - |
| 맞1- | + | + | + | - | + | + |
| 맞2- | 맞1- | 맞1- | + | 맞1- | 맞1- | - |
| 매1- | - | - | - | + | + | - |
| 매2- | + | - | - | + | + | - |
| 매- | + | - | + | + | + | + |
| 덕전- | 관형사 | + | + | 관형사 | 관형사 | + |
| 맞- | + | + | + | + | + | + |
| 매- | - | - | - | - | 당연 | + |
| 홍- | + | + | + | + | + | + |
| 홍- | + | + | + | + | + | + |
| 외- | - | - | - | + | - | - |
| 홍- | - | - | + | - | - | - |
| 외- | + | + | + | + | - | + |

<표1>에서 ‘+’는 해당 접두사가 표제어로 선정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고, ‘-’는 해당 접두사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품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품사를 해당 칸에다 적어 넣었다. 접두사 뒤에 붙인 숫자 1, 2 등은 사전에서 그 접두사를 동형어로 처리한 것을 나타낸다. 어떤 사전에서 동형어로 처리한 것을 다른 사전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한 경우에는 접두사에 숫자 1, 2 등을 붙여 동형어로 처리한 것을 우선 표시한 다음, 해당 접두사를 반복하여 쓰고 1을 붙여 표시하였다(예: ‘들이2-’의 칸에 ‘들이1-’을 표시함). 고유어 접두사를 한자어 접두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한자어를 적었으며(예: ‘强-’), 하나의 표제어에 두 품사를 붙여 처리한 경우는 두 품사 사이에 빗금(/)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예: 관형사/

접두사, 대명사/부사).

<표1>에는 어떤 표제어를 어느 한 사전이라도 접두사로 처리하였다면, 그 표제어를 모두 포함시켜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곧추’는 연세(1998)에서만 접두사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국어 사전에서는 부사로 처리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곧추’를 <표1>에 포함시켰다. 하나의 사전에서만 표제어로 선정된 고유어 접두사는 모두 35개로 다음과 같다. ‘간2-’(동아), ‘점1-’(한글학회), ‘곧추-’(연세), ‘곰-’(한글학회), ‘공-’(한글학회), ‘기-’(연세), ‘꼬부랑-’(연세), ‘꽃-’(한글학회), ‘다-’(한글학회), ‘들이2-’(한글학회), ‘땅-’(한글학회), ‘딱-’(한글학회), ‘벌-’(한글학회), ‘불1-’(한글학회), ‘살-’(한글학회), ‘숫2-’(금성), ‘에-’(동아), ‘여-’(이희승), ‘옛-’(한글학회), ‘올리-’(한글학회), ‘왕-’(한글학회), ‘작은-’(금성), ‘줄-’(한글학회), ‘중-’(한글학회), ‘진3-’(연세), ‘큰-’(금성), ‘통-’(한글학회), ‘포-’(한글학회), ‘피-’(한글학회), ‘한2-’(한글학회), ‘햇2-’(한글학회), ‘해1-’(금성), ‘헤-’(연세), ‘회-’(동아), ‘홀-’(한글학회). 그런데 ‘들이2-’, ‘햇2-’은 ‘들이1-’이나 ‘햇1-’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독립된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것을 다시 사전별로 정리하면, 이희승(1988)에는 1개, 신기철(1988)에는 하나도 없으며, 한글학회(1992)에는 22개, 동아(1994)에는 3개, 금성(1996)에는 4개, 연세(1998)에는 5개의 표제어가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전에만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은 접두사는 28개이다. 연세(1998)에서만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은 접두사는 ‘가막-’ ‘결-’ ‘결-’ ‘까막-’ ‘내-’ ‘넛-’ ‘대-’ ‘데-’ ‘들-’ ‘물-’ ‘말-’ ‘배내-’ ‘쌈-’ ‘쌈-’ ‘어리-’ ‘엇-’ ‘열-’ ‘오-’ ‘옹-’ ‘옹달-’ ‘외-’ ‘일-’ ‘좁-’ ‘줄2-’ ‘햇2-’ ‘헤2-’로 26개이다. 그리고 이희승(1988)에서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은 접두사는 ‘뒤-’이고, 한글학회(1992)에는 접두사 ‘죄2-’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다.

<표1>을 살펴보면, 이희승(1988)에는 83개(空, 王- 포함), 신기철(1988)에는 104개(空, 王- 포함), 한글학회(1992)에는 123개, 동아(1994)에는 107개(空, 王, 津- 포함), 금성(1996)에는 105개, 연세(1998)에는 74개(强, 幾, 每, 津- 포함)의 고유어 접두사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총 149개의 접두사가 이 6개의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세(1998)은 ‘연세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가 14번 이상인 약 5만 개의 단어 및 문법 형태소를 표제어로 선정했기 때문에 접두사의 개수가 다른 국어 사전보다 적다. 그리고 6개 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선정된 접두사는 44개이며, 이것은 전체 접두사 149개의 약 29.5%에 해당하므로, 위의 6개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는 접두사 중 평균적으로 약 29.5%만이 동일한 품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어학 논저에서 접두사로 논의된 것도 많이 있는데(예: ‘가라(앉다, 앉히다), 가랑(눈, 니, 머리, 무, 비, 이, 잎, 파), 가시(가시어머니), 간(힘) 등), 여기서 모두 열거하지는 않기로 한다.

3. 표제어의 비교

논의의 편의상, <표1>에 있는 149개 접두사의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나열하고, 각 사전에서 처리한 정보를 옮겨 비교하기로 한다.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접두사라는 품사를 따로 적지 않았으며,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품사를 밝혀 적었다. 그리고 해당 접두사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표제어의 의미는 사전에 있는 그대로 인용한 다음 바로 () 안에 그 사전에서 표제어로 올려진 접두파생어를 찾아 열거하였다. 그러나 동물명과 식물명을 나타내는 표제어들은 그 의미 정보만을 보고 접두 파생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더러 빠진 접두파생어도 있을 것이다. 특히 연세(1998)에서는 표제어의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은 반면에, 다른 사전들에서는 모두 형태소 분석을 해놓았다. 따라서 연세(1998)에서는 접두파생어로 처리한 표제어와 단일어로 처리한 표제어의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안에 열거한 연세(1998)의 접두파생어의 예는 필자 개인의 판단으로 수집한 것이다. 접두파생어의 예에는 고어, 방언, 북한어는 제외하였고, 띄어쓰기가 이루

어져 있으면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한 표제어도 제외하였다. 접두사의 용례 정보에 제시된 파생어의 예가 표제어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이희승(1988): 모다기육, 차수수 등. 신기철(1988): 차수수. 한글학회(1992): 민꼬리. 금성(1996): 강엄살, 메수수, 모다기육 등. 동아(1994): 간갈치, 간고등어, 강보리밥, 쇠고래, 햇감자, 햇담배 등. 연세(1998): 강추위, 강보리밥, 강술, 메떡, 메수수, 메조, 진간장, 진구렁, 진밥, 진반찬 등.)가 있지만, 용례 정보에서 제시한 접두 파생어를 모두 열거하였다. 접두사의 뜻이 둘 이상으로 풀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두파생어를 표제어의 정의 정보에 따라 분류하여 ()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는 분량의 제약으로 6개 접두사만 선택하여 6개의 국어 사전에서 어떻게 기술하였는가를 비교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1) '갈-'

- ㄱ. 이희승(1988): 없음.
- ㄴ. 신기철(1988): (일부 동물의 이름 위에 붙여) '작은'의 뜻을 나타냄(갈가마귀, 갈거미).
- ㄷ. 한글학회(1992): '작은'의 뜻(갈가마귀, 갈거미, 갈은상어).
- ㄹ. 동아(1994): 없음.
- ㅁ. 금성(1996): 일부 동물명에 붙여, 작음을 나타내는 말(갈까마귀, 갈가자미, 갈거미, 갈고등, 갈고등어, 갈은상어).
- ㅂ. 연세(1998): 없음.

이희승(1988)에는 접두사 '갈-'이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갈-가마귀, 갈-가자미, 갈-거미, 갈-고등어, 갈-지개'는 표제어로 선정하였으며, '갈'을 붙임표(-)를 사용하여 뒤의 성분과 따로 구별하여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갈-돔' '갈돔-과' '갈-전갱이'의 '갈'은 한자 '𪔐'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표제어 '갈-지개'는 '한 살 된 메, 갈색의 몸에 어두운 빛의 종반이 있음'으로 뜻풀이를 하여, '갈-'의 뜻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갈색'이 표현되어 있는데도 고유어로 처리하면서, “葛智箇로 씌은 취음(取音)”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갈-'을 고유어로 처리한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기문(1991)에서는 '갈

지개'는 몽고어에서 차용한 어휘로 '황매(黃鷹)'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갈지개'에서 '갈-'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표제어 '갈-가자미' '갈-고등어' 등의 뜻풀이에서도 '작은'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다.

신기철(1988)에서는 고유어 접두사 '갈-'과 한자어 접두사 '갈(褐)-'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한자어 접두사 '갈(褐)-'은 '갈색'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고유어 접두사 '갈-'의 예로 '갈-가마귀' '갈-거미'를 제시하였고, 한자어 접두사 '갈(褐)-'의 예로 '갈-고등어' '갈-지개'를 제시하였다. 표제어 '갈-가자미'는 고유어로 처리하였는데, 정의에는 '작은'과 '갈색'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갈-'을 한자어 접두사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갈-고등어'은 한자어 접두사의 예로 들어 놓고, 표제어 '갈-고등어'는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갈-돔' '갈-전갱이'도 고유어로 처리하였으나, 정의에는 '작은'의 뜻은 나타나 있지 않고, '갈색'의 뜻만 기술되어 있다.

한글학회(1992)에서는 고유어 접두사 '갈-'과 한자어 접두사 '갈(褐)-'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갈(褐)-'은 '갈색'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고유어 접두사 '갈-'의 예로는 '갈-가마귀' '갈-거미'를 제시하고, 한자어 접두사 '갈(褐)-'의 예로는 '갈-가자미' '갈-돔' '갈철-광'을 들었다. 그런데 표제어 '갈-거미'의 정의에는 '작은'의 뜻은 없고, '갈색'의 뜻만 포함되어 있으나, '갈-거미'가 '작은'의 뜻을 가진 고유어 접두사의 예로 제시되어 혼란을 일으킨다. '갈-돔'은 한자어 접두사 '갈(褐)'의 예로 들어놓고, 표제어 '갈-돔'은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갈-고등어' '갈-전갱이' '갈-쥐치' '갈-지개'의 경우도 고유어로 처리하였지만, '작은'의 의미는 없고, '갈색'의 의미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한자어 접두사 '갈-'의 예로 '갈철-광'을 제시하였지만, 표제어에는 '갈철'로 단일어로 처리하였다. 접두사 '갈-'의 예로 '갈철광'이 적합한지 아니면 '갈철'이 단일어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일관성이 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동아(1994)에는 접두사 '갈-'이 없다. 그러나 '갈-가마귀, 갈-거미, 갈-고등어'는 표제어로 선정하였으며, '갈-'을 붙임표(-)를 사용하여 뒤의 형태와 구분해 놓았다.

금성(1996)에서는 고유어 접두사 ‘갈-’만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표제어 ‘갈-’의 예로 ‘갈-까마귀’ ‘갈-거미’를 들었다. ‘갈-까마귀’는 ‘까마귀’보다 약간 작으며’라고 뜻풀이를 하여, 접두사 ‘갈-’의 뜻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갈-거미’는 ‘장수-갈거미’와 뜻이 같은 말로 표시하고, 뜻풀이는 없으며, ‘장수-갈거미’의 뜻풀이에는 접두사 ‘갈-’의 뜻 즉 ‘작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갈-은상어’에는 ‘은상어와 비슷하나 좀 작음’이라고 뜻풀이를 하여 접두사 ‘갈-’의 뜻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갈-가자미, 갈-고둥, 갈-고둥어’에는 접두사 ‘갈-’의 뜻은 찾아볼 수 없다. ‘갈-고둥어’의 뜻풀이에만 ‘적갈색 세로띠’라는 표현이 있어, ‘갈-’이 한자어 ‘褐-’로 해석될 수 있다. 표제어 ‘갈-돔(褐-)’은 한자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 ‘갈가마귀’라고 표기하였지만, ‘갈까마귀’로 바르게 표기하였다. ‘가마귀’는 방언이며, ‘까마귀’가 표준어이기 때문이다.

연세(1998)에서는 ‘갈-’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다. ‘갈-’이 붙은 표제어로 ‘갈가마귀’만 있는데, ‘작은’의 의미가 정의에 표현되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 사전에 올려져 있는 고유어 ‘갈-’ 또는 한자어 ‘갈(褐-)’ 이 붙은 표제어를 모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런데 표에서 ‘-’는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갈-’과 한자어 ‘갈(褐-)’ 또는 ‘갈(褐-)’과 ‘갈철(褐鐵)’이 동시에 있는 것은 표제어와 접두사의 예가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그리고 ‘갈돔’으로 표시한 것은 고유어 단일어로 처리한 것을 나타내며, ‘갈-, 葛’에서 ‘葛’은 취음을 표시한 것이다.

허용(1995)에서는 ‘갈-’을 ‘흰 빛과 관계가 있는 뜻’으로 뜻풀이하고, ‘갈가자미’ ‘갈거미’ ‘갈고둥어’를 예로 들었다. 그리고 ‘갈매기’는 파생어가 아니며, ‘갈가자미’는 ‘갈-’이 붙은 것으로 보이나 흰 빛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갈-’은 어원이 한자어로 된 것이지만, 지금은 한자어로 여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고유어 접두사로 처리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것으로는 ‘강-(추위)’ ‘대-(번)’ ‘둥-(저고리)’ ‘말-(개미)’ ‘용-(트림)’ ‘팔-(난봉)’ ‘헛-(고생)’ 등을 들 수 있다.

| 표제어 | 사전 | 이희승 (1988) | 신기철 (1988) | 한글학회 (1992) | 동아 (1994) | 금성 (1996) | 연재 (1998) |
|-------|-------|---------------|---------------|----------------|--------------|--------------|--------------|
| 강-가마귀 | 강- | 강- | 강- | 강- | 강- | 강- | 강 |
| 강-개차미 | 강- | 강- | 강- | 강(屬)- | - | 강- | - |
| 강-개미 | 강- | 강- | 강- | 강- | 강- | 강- | - |
| 강-고들 | - | - | - | - | - | 강- | - |
| 강-고동여 | 강 | 강, 강(屬)- | 강- | 강- | 강- | 강- | - |
| 강-들 | 강(屬)- | 강- | 강, 강(屬)- | 강, 강(屬)- | 강, 강(屬)- | 강(屬)- | - |
| 강-은생여 | - | - | 강- | - | - | 강- | - |
| 강-전갱이 | 강(屬)- | 강- | 강 | 강(屬)- | 강(屬)- | 강(屬)- | - |
| 강-러지 | - | - | 강- | 강- | 강- | 강- | - |
| 강-지저 | 강-, 강 | 강(屬)- | 강- | 강- | 강- | 강- | - |
| 강-절 | 강절(屬) | 강절(屬) | 강(屬)-, 강절(屬) | 강절(屬) | 강절(屬) | 강절(屬) | - |

(2) '강-'

- ㄱ. 이희승(1988): ①아주 호되거나, 억척스러움을 나타내는 말(강다짐, 강다짐하다, 강더위, 강바람, 강발다, 강추위). ②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으로만 이루어진'의 뜻을 나타내는 말(강굴, 강담, 강술, 강조밥, 강피밥).
- ㄴ. 신기철(1988): ①(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억지' '부자연스러운' '호된'을 뜻하는 말(강다짐, 강더위, 강바람, 강새암, 강쌈, 강울음, 강주정, 강추위, 강호령). ②(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을 뜻하는 말(강술, 강조밥, 강참숯, 강피밥, 강회).
- ㄷ. 한글학회(1992): ①몇몇 이름씨나 붙이씨에 붙어, '억지스러운' '몹시 심한'의 뜻을 나타냄(강다짐, 강다짐하다, 강더위, 강마르다, 강도, 강바람, 강발, 강발다, 강새암, 강새암하다, 강쌈, 강쌈하다, 강울음, 강주정, 강주정하다, 강짜, 강짜새암, 강짜하다, 강추위, 강호령, 강호령하다). ②몇몇 이름씨에 붙어 '오직 그것만으로 된'의 뜻을 나타냄(강굴, 강담, 강보리밥, 강술, 강소주, 강술, 강조밥, 강참숯, 강피밥, 강풍, 강회).
- ㄹ. 동아(1994): (일부 명사 앞에 붙어) ①'억지'의 '부자연스러운' '호된' 등의 뜻을 나타냄(강다짐, 강더위, 강발, 강쌈, 강주정, 강추위). ②'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나타냄(강굴, 강보리밥, 강술, 강조밥, 강참숯, 강피, 강피밥, 강피죽).
- ㅁ. 금성(1996): ①'억지' '호된' '부자연스러운'을 뜻하는 말(강다짐, 강다짐하다, 강더위, 강마르다, 강발, 강발다, 강쌈, 강쌈하다, 강울음, 강엽살, 강추위, 강호령) ②'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을 뜻하는 말(강보리밥, 강술, 강조밥, 강참숯, 강피밥, 강

회).

- 나. 연세(1998): 한자어 접두사 '강(強)-'. ①(일부 명사 앞에 붙어) '세거나 고되다'의 뜻을 나타냄(강추위, 강행군, 강훈련).
②(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의 뜻을 나타냄(강보리밥, 강술).

연세(1998)에서만 '강-'을 한자어 접두사 '강(強)-'으로 처리하였다. 연세(1998)에서는 고유어 접두사 '강-'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한자어 접두사 '강(強)-'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다. 그리고 접두사 '강(強)-'을 다의어로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하였다.

- ①(일부 명사 앞에 붙어) '세거나 고되다'의 뜻을 나타냄(강추위, 강행군, 강훈련). ②(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의 뜻을 나타냄(강보리밥, 강술).

그런데 표제어 '강추위'는 접두사 '강(強)-'의 예와는 달리 고유어로 처리하여, '몹시 심한 추위'로 풀이하였다. 이 '강추위'는 연세(1998) 이외의 사전에서 고유어 접두사 '강-'의 예로 제시된 것이며, 표제어 '강추위'도 고유어로 처리하였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눈도 오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②의 뜻풀이와 예는 다른 사전의 고유어 접두사 '강-'의 그것과 일치한다. '강추위' '강보리밥' '강술'에서 '강-'이 과연 한자어 접두사인지 의심스럽다. '강추위' '강보리밥'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강짜'가 표제어로 올려져 있으나, '강-'이 접두사의 뜻으로 풀이된 것은 아니다. ②의 뜻을 가진 접두사가 붙은 표제어는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다. 금성(1996)에서는 '강보리밥'은 북한어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제어 '강-'의 예로 제시하였다.

그러면 다른 사전에서는 한자어 접두사 '강(強)-'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이회승(1988)에서는 '매우 세거나 매우 됨'을 뜻하는 말로 풀이하고, 예로 '강숫' '강편치' '강행군'을 제시하고 있다. 신기철(1988)에서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썩 세거나 된'"을 뜻하는 말로 풀이하고, 예로 '강슈우트' '강티임' '강편치' '강행군'을 들었다.

한글학회(1992)에서는 ‘아주 센’ ‘호된’의 뜻으로 풀이하면서, ‘강팀’ ‘강염기’ ‘강행군’을 예로 제시하였다. 동아(1994)에서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무리함을 무릅쓴’ 등의 뜻을 나타냄”으로 풀이하고, ‘강타자’ ‘강편치’ ‘강행군’을 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금성(1996)에서는 ‘매우 세거나 뽀’를 나타내는 말로 풀이하면서, ‘강타자’ ‘강편치’ ‘강행군’을 예로 제시하였다.

이회승(1988)에서는 ‘강다짐’의 뜻을 3가지로 풀이하고 있으며, ‘강다짐’에서 ‘강-’의 뜻을 위의 ㄱ. 이회승(1988)에 제시한 ①과 ②로 기술하였다. ‘강울음’은 ‘억지로 우는 울음’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강-’의 뜻이 ‘억지로’로 표현되어 있다. ‘강주정’은 ‘일부러 취한 채하는 주정’의 뜻을 나타내는데, ‘강-’의 뜻인 ‘일부러’로 표현되어 있어, 접두사 ‘강-’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글학회(1992)에서는 ‘강풀’을 ‘강-’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강-풀’은 ‘물에 개지 아니한 된풀’로 뜻풀이를 하고 있어, 접두사 ‘강-’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적절한 예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강-짜’는 ‘강새암’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지나치게’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연세(1998)에서 ‘강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닌 다른 이성을 좋아하고 가까이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어, 접두사 ‘강-’의 의미가 기술되지 않아, 접두파생어 ‘강-짜’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신기철(1988)과 동아(1994)에서는 접두사 ‘강-’의 제약 조건인 ‘일부 명사 앞에 붙어’라는 표현이 ①, ②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회승(1988)과 한글학회(1992)에서는 이 제약 조건이 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한글학회(1988)에서는 ①의 제약 조건으로 ‘몇몇 이름씨나 풀이말에 붙어’라고 하여 풀이말에도 붙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허용(1995)에서는 ‘강마르다’에서의 ‘마르다’는 동사이나, ‘강마르다’는 형용사이니, 접두사가 품사를 바꾸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같은 용언이므로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마르다’의 ‘강-’도 접두사로 보고, ‘강마르다’의 센말로 보았다.

연세(1998)을 제외한 다른 국어 사전에서는 ‘강-’은 한자어 ‘強-’에서 온 것으로, 고유어에 자주 붙어 쓰여 원래의 의미가 변화되고 자립성을 잃었으므로 ‘강-’을 접두사화한 것으로 처리한 것 같다.

(3) ‘거머-’

ㄱ. 이회승(1988): 없음.

ㄴ. 신기철(1988): 없음.

ㄷ. 한글학회(1992): ‘휘몰아 들어거나 가짐’의 뜻(거머당기다, 거머들이다, 거머먹다, 거머삼키다, 거머안다, 거머잡다, 거머쥐다, 거머채다).

ㄹ. 동아(1994): 없음.

ㅁ. 금성(1996): 없음.

ㅂ. 연세(1998): 없음.

한글학회(1992)에서만 ‘거머-’를 접두사로 처리하였다. ‘거머먹다’는 ‘이것저것 급하게 건어 먹다’로 뜻풀이를 하였고, ‘거머삼키다’는 ‘이것저것 급하게 건어 삼키다’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따라서 ‘거머-’를 ‘이것저것 급하게 건어’의 뜻으로 기술하여 표제어 ‘거머-’의 의미와는 다르게 뜻풀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표제어 이외의 ‘거머-’가 붙은 다른 표제어들에서는 ‘거머-’를 ‘휘몰아’ ‘휘감아’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뜻풀이 역시 표제어 ‘거머-’의 의미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접두사 ‘거머-’의 뜻풀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회승(1988), 신기철(1988), 동아(1994), 금성(1996)에서도 한글학회(1992)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머-당기다’ ‘거머-들이다’ ‘거머-먹다’ ‘거머-삼키다’ ‘거머-안다’ ‘거머-잡다’ ‘거머-쥐다’ ‘거머-채다’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회승(1988)에서는 ‘거머-’를 ‘탐스럽게 휘몰아’ ‘탐스럽게’의 뜻으로, 신기철(1988)에서는 ‘휘감아’ ‘탐스럽게 휘몰아’ ‘욕심스럽고 급하게 휘몰아 건어’ ‘탐스럽게 움켜’ ‘힘있게 잡아’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동아(1994)에서는 ‘거머-’를 ‘힘차게 휘감아’ ‘힘차게 휘몰아’ ‘욕심스럽게 마구’ ‘욕심스럽게 마구 휘몰아’ ‘힘있게 마구 휘몰아’ ‘힘있게 움켜’ ‘힘있게 싸잡아’ ‘힘차게 잡아’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금성(1996)에서는 ‘거머-’의 2차 어원을 설명하였는데, ‘거머-’는 ‘감-’이 변한 것으로 보고, ‘감-’은 ‘엷혀’ ‘둘러’의 뜻을 나타내는 ‘요(纚)’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거머-’가 붙어 있는 표제어들에서는 ‘거머-’는 ‘힘차게 휘감아’ ‘힘차게 휘몰아’ ‘욕심스럽게 휘몰아 급히 걷어’ ‘탐스럽게 휘몰아’ ‘담속 움켜’ ‘휘감아’의 뜻으로 각각 다르게 풀이되어 있다.¹⁾

연세(1998)에는 ‘거머잡다’ ‘거머쥐다’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거머’를 ‘(손으로) 꼭 움켜’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거머-’의 준말의 형태인 ‘검-’은 ‘잡다’와 ‘쥐다’와만 결합이 가능하며, ‘검잡다’ ‘검쥐다’만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어 사전에서 기술한 ‘거머-’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기술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머-’는 화석화한 형태로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고 보고, 공시적인 단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합성어로부터 분석되기만 하는 어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어근으로 볼 수도 있어, ‘거머-’를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대부분의 사전에서 반영한 것 같다(김창섭, 1998, 참고). 그렇지만 ‘거머-’를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성(1996)처럼 ‘거머’에 관한 설명을 ‘거머-’가 붙은 표제어마다 해주거나, 따로 ‘거머-’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거머’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기-’

- ㄱ. 이희승(1988): 없음.
- ㄴ. 신기철(1988): 없음.
- ㄷ. 한글학회(1992): 없음.
- ㄹ. 동아(1994): 없음.

1) 금성(1996)에서는 김민수 편 『우리말 어원 사전』을 참고하여, 어원을 1차 어원과 2차 어원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1차 어원은 순 우리말을 제외한 말, 곧 한자어와 외래어는 표제어 바로 다음에 각각 한자와 로마자, 가나 등을 【 】 안에 보이고 있다. 2차 어원은 순 우리말(또는 한자어와 결합된 우리말) 및 순 우리말화한 것(또는 언중이 우리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중 이상의 국적을 거친 말의 어원이며, 품사 뒤에 [] 로 써서 보이고 있다.

ㄱ. 금성(1996): 없음.

ㄴ. 연세(1998): (숫자 앞에 붙어) '여러, 몇'의 뜻을 나타냄(기십만 원).

연세(1998)에서는 '기-'를 접두사로 처리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 '기-'는 한자어 '幾'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어 접두사가 아니다. 물론 한자 '幾'를 빠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가 고유어나 한자어나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표제어 '기-'의 예로 '기십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표제어 '기십(幾十)'을 찾아보면, '기십'은 '주로 관형사적으로 쓰이어, 몇 십'의 뜻을 나타내는 수사로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접두사 '기-'의 예인 '기십만'은 표제어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표제어 중에서 적절한 예를 찾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제어 '기백(幾百)'은 '주로 관형사적으로 쓰이어, 몇 백'의 뜻을 나타내는 수사로 처리하였다. '기천(幾千)'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표제어 '기만(幾萬)'은 '주로 관형사적으로 쓰이어, 몇 만'의 뜻을 나타내는 수사로 설명하고 있다.

이희송(1988)에서는 '기십' '기-십만' '기백' '기천' '기만'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는데, 모두 명사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기-십만'만 파생어로 처리하였는데, '십만'이 '몇'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기철(1988)에서는 '기-십' '기-십만' '기백' '기-백만' '기천' '기만'이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명사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기-십'은 파생어로 처리하였는데, '기백' '기천' '기만'은 단일어로 처리하였다.

한글학회(1992)에서는 '기십' '기백' '기천' '기만'이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모두 단일어 이름씨(명사)로 처리하였다.

동아(1994)에서는 '기십' '기번(幾番)' '기만'이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번'을 '몇 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로 처리하여, '기'가 수사에만 붙는 것이 아닌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기십' '기만'은 수사로 처리하였다.

금성(1996)에는 '기십만' '기백만'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 '기십' '기백' '기천' '기만'을 수사와 관형사라는 두 품사를 모두 가지

는 단일어로 처리하였다.

이희승(1988), 신기철(1988), 한글학회(1992), 동아(1994), 금성(1996)에
서는 한자어 접두사 ‘기(幾)’도 찾아볼 수 없다.

(5) ‘꼬부랑-’

ㄱ. 이희승(1988): 없음.

ㄴ. 신기철(1988): 없음.

ㄷ. 한글학회(1992): 없음.

ㄹ. 동아(1994): 없음.

ㅁ. 금성(1991): 없음.

ㅂ. 연세(1998):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꼬부라진’의 뜻을 나타냄
(꼬부랑글썩, 꼬부랑글자, 꼬부랑길, 꼬부랑할머니).

연세(1998)에만 ‘꼬부랑-’이 접두사로 처리되어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
다. 다른 5개 사전에서는 ‘꼬부랑’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꼬
부랑꼬부랑’은 부사로 처리하였다.

이희승(1988)에서는 ‘꼬부랑 글자’ ‘꼬부랑-길’ ‘꼬부랑-꼬부랑’ ‘꼬부
랑꼬부랑-하다’ ‘꼬부랑 늙은이’ ‘꼬부랑다리-지네’ ‘꼬부랑-말’ ‘꼬부랑-
이’ ‘꼬부랑 자지’ ‘꼬부랑-하다’ ‘꼬부랑 할미’ ‘꼬부랑 할아범’을 표제
어로 선정하였으며, ‘꼬부랑-꼬부랑’은 부사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꼬부
랑 글자’ ‘꼬부랑 늙은이’ ‘꼬부랑 자지’ ‘꼬부랑 할미’ ‘꼬부랑 할아범’
은 띄어 쓰고, 구가 아닌 명사로 처리하였다.

신기철(1988)에서는 ‘꼬부랑거리다, 꼬부랑 글자, 꼬부랑길, 꼬부랑꼬
부랑, 꼬부랑꼬부랑하다, 꼬부랑 늙은이, 꼬부랑말, 꼬부랑이, 꼬부랑 자
지, 꼬부랑하다, 꼬부랑 할미, 꼬부랑 할아범’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꼬부랑 글자, 꼬부랑 늙은이, 꼬부랑 자지, 꼬부랑 할미, 꼬부랑 할아
범’은 띄어 썼으며, 명사로 처리하였다.

한글학회(1992)에서는 ‘꼬부랑거리다, 꼬부랑글썩, 꼬부랑글자, 꼬부랑
길, 꼬부랑꼬부랑, 꼬부랑꼬부랑하다, 꼬부랑늙은이, 꼬부랑대다, 꼬부랑
말, 꼬부랑이, 꼬부랑자지, 꼬부랑하다, 꼬부랑할미, 꼬부랑할아범’을 표
제어로 수록하고 있으며, 모두 붙여 썼다. ‘꼬부랑꼬부랑’은 부사로 처

리하였다.

동아(1994)에서는 ‘꼬부랑 글자’ ‘꼬부랑 늙은이’로 띄어 썼고, ‘꼬부랑길’ ‘꼬부랑-꼬부랑’ ‘꼬부랑꼬부랑하다’ ‘꼬부랑-이’ ‘꼬부랑-하다’는 붙여 썼다. ‘꼬부랑-꼬부랑’은 ‘꼬부랑꼬부랑’의 센달이며, 부사로 처리하였다.

금성(1996)에서는 표제어 ‘꼬부랑 글자’의 어원 정보에서 ‘꼬부랑’을 의태어 ‘꼬불’과 접사 ‘-앙’이 결합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꼬부랑길, 꼬부랑꼬부랑, 꼬부랑꼬부랑하다, 꼬부랑다리장님지네, 꼬부랑말, 꼬부랑이, 꼬부랑자지, 꼬부랑하다’는 붙여 썼으며, ‘꼬부랑 글자, 꼬부랑 늙은이, 꼬부랑 할머니’는 띄어 쓰고 있다. 이희승(1988)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표제어들을 띄어 쓰고 명사로 처리하였으며, ‘꼬부랑꼬부랑’은 부사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희승(1988)에서 띄어 쓴 ‘꼬부랑 자지’는 ‘꼬부랑자지’로 붙여 썼다.

연세(1998)에서는 표제어 ‘꼬부랑글씨, 꼬부랑글자, 꼬부랑길, 꼬부랑 할머니’는 모두 붙여 썼다. ‘꼬부랑’을 접두사로 처리하면, ‘꼬부랑’은 그 뒤에 오는 형태에 당연히 붙여서 써야 한다.

한글학회(1992)에서는 ‘꼬부랑’이 붙은 표제어들은 일관성이 있게 모두 붙여 썼는데, 올바르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금성(1996)의 ‘꼬부랑’의 어원에 관한 기술은 ‘꼬부랑’을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더라도, ‘꼬부랑’이 붙은 표제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헤-’

ㄱ. 이희승(1988): 없음.

ㄴ. 신기철(1988): 없음.

ㄷ. 한글학회(1992): 없음.

ㄹ. 동아(1994): 없음.

ㅁ. 금성(1996): ‘해1-’의 제주·함경 방언.

ㅂ. 연세(1998): 〈일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빛깔이 허엿다’는 뜻을 나타냄(해밀꿨다, 해밀쑥하다).

연세(1998)에서만 ‘헤-’를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예로 ‘해밀꿨다’

‘헤벌쭙하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둘은 표제어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접두사 ‘헤-’가 붙은 표제어가 하나도 선정되지 않은데도 접두사 ‘헤-’를 표제어로 선정한 이유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말뭉치를 이용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 및 문법 형태소를 표제어로 선정했다면 접두사만 표제어로 선정하고, 그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 방법이다. ‘헤-’가 붙은 ‘헤벌쭙하다’ ‘헤벌쭙하다’는 다른 사전에서는 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희승(1988)에서는 ‘헤-벌쭙다’는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헤벌쭙하다’는 ‘희벌쭙하다’의 방언으로 처리하였다.

신기철(1988)과 한글학회(1992)에서는 ‘헤-벌쭙다’는 ‘희벌쭙다’의 방언으로, ‘헤벌쭙하다’는 ‘희벌쭙하다’의 방언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금성(1996)에서는 ‘헤-’는 접두사 ‘해-’의 제주·함경 방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헤벌쭙다’는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다. ‘희벌쭙다’는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는데, ‘해말쭙다’는 ‘희벌쭙다’의 어감이 작은 말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헤벌쭙하다’는 ‘희벌쭙하다’의 방언으로 처리하였는데, ‘희’는 ‘희다’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해말쭙하다’의 의미는 ‘희벌쭙하다’의 어감이 작은 말로 기술하고 있다.

4. 맺음말

(1)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올려져 있는 접두사의 평균 약 29.5% 정도만이 올바른 품사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용자에게 혼돈을 가져다준다. 품사 정보는 사전에서 제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법 정보의 하나로, 접두사라는 품사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접두사만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법적 특징들을 사전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접두사 처리의 혼란은 규범적인 접두사의 목록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어 사전에서 편찬자 또는 집필자가 자의적으로 접두사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어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규범문법의 차원에서

접두사의 정의와 목록에 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은 규범적인 성격과 교육적인 성격을 자연히 지니게 되는데, 사전을 이용하는 일반 독자가 어느 사전에는 접두사로, 또 다른 사전에는 다른 품사로 설명되어 있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가 없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접두사 목록의 작성 문제는 접두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접두파생어의 항목에 접두사의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특히 사전의 거시구조, 띄어쓰기 정보, 품사 정보, 정의 정보 등과 직결되어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접두사를 표제어로 선정하는 기준은 사전 편찬 목적이나 사전편찬자에 의해 결정된다. 고유어 접두사를 모두 표제어로 선정할 것이지만,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접두사를 선정하여 표제어로 올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접두사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생산성이 낮은 접두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서 흔히 극히 비생산적인 접미사는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접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접두사의 형태론적 생산성을 고려하여 접두사의 표제어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가 숫자가 적은 경우, 즉 생산성이 낮은 경우에도 그 접두사가 붙은 소수의 접두파생어가 사용 빈도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이용자가 어떤 표제어가 접두파생어인지 판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두사는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확인되지 않은 접두파생어나 접두파생어로 인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휘들도 있어 접두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표제어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3) 국어 사전에서 접두사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서,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별 기준을 세워 배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품사, 어원, 통사적 특질 등의 기준에 따라 동형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데, 접두사의 경우에는 표제어로 올려질 접두사의 목록을 확정하고, 접두사의 의미와 문법적 특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기준을 찾아 동형어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국어 사전에는 접두파생어의 배열은 접두사와 관련이 없이 다른

표제어와 분할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문세영 「조선어사전」(1938) 등에서는 표제어로 선정한 접두사의 하위 표제어로 그 접두사가 붙은 접두파생어들을 재배열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재배열 방법은 접두사의 용례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상위 표제어와 하위 표제어의 의미나 형태 관계를 쉽게 이해하게 하여 어휘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접두파생어의 목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사전 이용자가 어떤 접두파생어를 찾아볼 경우 그것이 접두파생어인지, 또는 어떤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접두파생어를 접두사의 하위 표제어로 배열하면 표제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사전 이용자를 배려하여 접두파생어의 배열 방법을 일러두기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접두사의 제약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제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 애매하다. 각 접두사의 제약 조건을 정리한 다음에 그 조건들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사전에서, 접두사의 제약 조건을 밝히는 경우 ()를 사용한 경우나,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약 조건의 형식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6) 국어 사전에서는 접두파생어의 일정한 정의 정보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 접두사의 의미에 따라 표제어의 정의 정보의 형식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국어 사전에서는 접두파생어의 정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접두사의 의미 적용이 일관성이 없이 기술되고 있다. 접두파생어의 정의 정보를 기술하기 전에 반드시 접두파생어의 대표적인 예들을 통하여 각 접두사의 의미를 우선 정확하게 기술한 다음, 그 기술된 접두사의 의미가 표제어의 정의를 기술할 때에 일관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7) 접두사의 예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접두사의 예로 제시한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접두파생어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두파생어를 예로 제시하지 않고,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은 접두파생어를 접두사의

예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표제어로 선정된 접두파생어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그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8) 표제어가 전문용어 중에서 특히 동식물의 이름일 경우, 그 표제어들의 정의정보에는 접두사의 의미가 분명하게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표제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어 사전에서 접두파생어인 동식물명의 정의는 접두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전】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_____ 편(1996),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남광우(1984), 『고어사전』, 서울: 일조각.

문세영(1938), 『조선어사전』, 경성: 조선어 사전간행회.

신기철 · 신용철(1988),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이데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

유창돈(1985), 『이조어사전』, 서울: 연세대출판부.

이기문 감수(1994),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이희승 편저(1988),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홍윤표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 서울: 태학사.

【논저】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서울: 박이정.

- 김광해(1995),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서울: 집문당.
- 김창섭(1992), 「파생 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1995), 「국어 파생 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서울: 애산학회.
- _____(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I』, 서울: 태학사.
- 박형익(1991), 「사전과 언어학」, 『경기교육논총』 1, 수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_____(1994), 「한국어 사전의 올림말의 배열 순서」, 『경기대학교 논문집』 34, 수원: 경기대학교.
- 서병국(1975), 『국어 조어론』,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서정미(1994),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석사논문, 서울: 경기대학교.
- 성환갑(1972), 「접두사 연구」, 석사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 _____(1997), 「파생법의 변화」, 국어사연구회, 『국어사연구』, 서울: 태학사.
- _____(1998), 「‘발사돈/바깥사돈’의 ‘발/바깥’에 대하여」, 심재기 편,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서울: 태학사.
- 송철의 · 이남순 · 김창섭(1992),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서울: 동아출판사.
- 이병근(1986),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1992), 「사전 정의의 유형과 원칙」, 『새국어생활』 2-1,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한재영(1992), 「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문학과 사회』 18.
- _____(1994), 「국어사전과 품사분류론」, 『주시경학보』 14, 서울: 보고사.
-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홍윤표(1986), 「최초의 국어사전 「국한회어」에 대하여」, 『국어학논총(소당

천시권박사화갑기념논문집)』.

_____ (1998), 「‘하다’와 ‘많다’와 ‘크다’」, 심재기 편,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서울: 대학사.

홍종선(1997), 「국어 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2): 올림말(1)」, 김용모 편,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 박이정.

홍재성(1986),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국어생활』 7, 서울: 국립국어연구소.

_____ (1987),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정보」, 『어학연구』 23-1,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